

## 지역 주도 유·초·중등 미래교육 모습 '한눈에'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개막 내달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지역 넘어 세계 향하는 ‘K-에듀’ 콘퍼런스·미래교실·축제 등 다채 “글로벌 교육으로 교육위기 극복”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가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전남도·경북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29일 개막해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유·초·중등 미래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16개

시도교육감, 이배웅 국가교육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초청 인사 9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K-에듀’의 시작을 함께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개막 연설에서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역 중심 공생의 글로벌 교육을 펼치고자 한다”면서 “글로벌 교육을 통해 전남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높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희망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는 지역 중심의 교육개혁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돼 세계를 선도하는 우수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개막식 주제 공연은 전남의 한 작은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의 모습에서 시작해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감동의 스토리로 풀어내 현장 관객들에게 박수갈

채를 받았다. 1년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날 개막한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오는 6월2일까지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벌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축제 등 5개 섹션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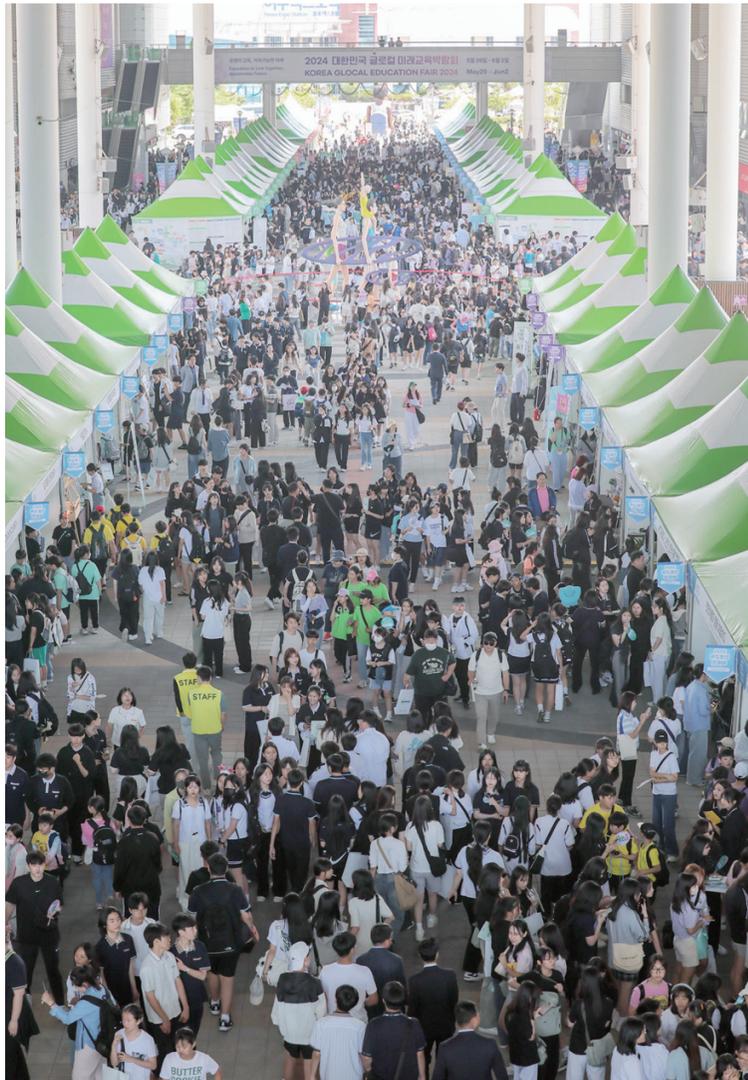
특히 전남 교사 400여명이 개발해 공개하는 2030년 미래수업 모델부터 해외 22개국, 세계적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등 손에 잡히는 미래교육의 실제 모습을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일인 이날 큰 화제를 모았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강연, 개막 특별공연 ‘에듀드림 K-POP 콘서트’, 해군교육사령부의 국악대 퍼레이드와 일차별 전시·콘퍼런스가 알차게 전개됐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kglocaled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5면

김혜인 기자 hyein.kim@jinilbo.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배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교육관계자들이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 후 학교별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광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변경... 은행권 ‘촉각’

관련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발의 지역재투자·유동성 비율 등 신설

광주시가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면서 은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조7000억원대에 달하는 광주시 금고 지기를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가 항목 변경이 최종 금고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

시의회에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총 100점에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시민이용 편의성 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7점이다.

시민이용 편의성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을 신설해 6점을 배정했고, 금융기관 신용도 항목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및 대손충당금’도 새로 추가해 2점을 부여했다. 기존 정기예금 만

기 이후 적용금리(2점), OCR센터(광학식 문자판독) 운영능력 및 계획(2점) 평가 항목은 삭제했다.

이처럼 금고 선정 기준 변경이 예고되면서, 금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은행들은 유불리 분석과 함께 이에 따른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평가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새로 추가된 지역재투자 관련 항목은 지방은행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및 대손충당금 항목의 경우 총자본이나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시중은행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KB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금고 운영기간은 올해 말 종료되며, 새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2025년 1월부터 4년간 운영한다. 올해 광주시 예산 규모는

7조7770억원이다.

시의회는 6월 초 임시회에서 금고지정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광주시는 조례가 공포되면 9월 초 금고지정 심의 설명회를 하고, 10월 초 심의위원회(9~12명)를 구성한 뒤 심의한다. 최권범 기자

##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태배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